

Pan America 機便으로 「호노루루」에 도착하였습니다. 십세 一九도쯤이라는 기후는 겨울의 복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읍니다. 반소매 등저고리 바람으로 「와이끼끼」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해수욕객들이 온 거리를 수놓고 있었읍니다. 이날밤 비행기로 「로스엔젤스」를 향하여 떠났읍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하루밤을 잤는데도 오늘은 여전히 十四일입니다. 十四일을 이를 산 셈입니다. 「로스엔젤스」는 十五일 새벽 六시에 도착하였읍니다. 여기서 「멕시코」로 가는 Western 機에 換乘하여야 됩니다. 「로스엔젤스」는 등판하고 수속하는 잠깐의 시간밖에 머무를 수 없어서 市内干청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Mexico 에 도착한것은 十五일 오후八시이었읍니다. 도중에 「샌타아고」에 한번 쉬었다 읍니다. 여기 기 후는 一四. C 정도랍니다. 코호트트고 출주북 차림이면 꼭 알맞을 기후였읍니다.

十六일 대사관을 방문하고 회대사와 여러 관원들을 상봉하였읍니다. 「멕시코」國立大學에 교환교수로 와있다는 禹教授란 분과도 初對面을 하였읍니다. 앞으로 일본의 협조를 얻게 된답니다. 이날로 Hotel Geneve에서 하숙집으로 자리를 옮겨 안정하였읍니다. 한국인 二世의 五八세인 할머니가 주인이었읍니다. 큰아들은 소아과의사로 미국에 가서 살고 작은아들은 교포 교민회장을 겸하고 있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여러가지 편리한 일이 많을 그러한 거점을 얻게된 것입니다.

十七일은 일요일이었읍니다. 禹教授의 안내로 韓人教會에 갔읍니다. 서울서은 禹教授가 교포와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을 인도하고 있었읍니다. 이분들과 즐거운 회합을 갖섯읍니다. Chapulapac공원에 韓國Pavilion을 짓는다는 요일과 전의 회대사의 기자회견 보도로 우리들 일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읍니다.

Chapulapac 공원의 都市안에 있는 공원이므로는 세계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크다고 이나라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었읍니다.

十八일 공원의 현장을 답사하였읍니다. 우리 정자를 세울 자리입니다. 일견 석마음에 드는 좋은 위치였읍니다.

식물원안에 자리 잡고 있고 정자터 바로 옆에 巨木의 소나무가 있어서 더욱 좋았읍니다. 宣傳効果에도 알맞은 자리이고 하여서 모두 마음이 흡족하였읍니다.

十九일 「멕시코」市廳을 대사관 具參事官의 안내로 예방하였읍니다. 共公事業局長과 總務局長 그리고 식물원 관리 책임자를 만났읍니다. 모두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읍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답니다.

釜山에서 부친 亭子의 資材가 Acapulco港에 도착하였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온 송입자와 협의하여 二十일 Acapulco에 가서 확인 인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밤에는 하숙집 주인 들레아를 Miguel Lee Kim을 만났읍니다. 정자의 기초방법을 의논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멕시코」는 마치 白頭山 天池가 말라서 생긴 것 같은 都市이어서 地盤이 몹시 약합니다. 수정과도 같은 성질을 갖어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었다간 얼마후 바로 서곤 합니다. 거리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기울은 것이 자주 눈에 띄었읍니다. 몇년전에 태풍에 이 도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라틴 타워」(四十五층)가 약 一五도가량 기울었읍니다. 유리명장 깨어지고는 곧 원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울거나 沈下하여도 조금도 걱정이 없답니다. 한쪽이 내려 앉으면 도시 어느쪽에서고 솟아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얼마후 그 부분이 갈아앉으면 원상으로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건물 기초법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들은 건물의 한하여는 미국보다 三十年 앞서고 있다고 자랑입니다. 실제로 미국인 건축학도들이 이 나라를 순방하고 있는 三十一명의 一行과 국립대학 구내에서 만나기도 하였읍니다.

二十六일의 Miguel씨의 검토 결과를 듣기로 하고 헤어졌읍니다. 二十일 오후 짐을 확인하러 Acapulco港으로 떠났읍니다. 세계美港의 하나라고 선전이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 일기는 지금 二〇. C 정도랍니다. 거리는 三五〇km Ford 六七年 年度型 세단차로 五시간 걸리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Acapulco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第九卷 第三號 通卷九十二號 —  
天原 大坪里寺址의 石塔材

李 殷 昌

一、序 言

一九六七年 九月下旬頃에 安市市에서 搬出途中에 있는 石塔片 四個를 抑留하고 그 狀況이 報告된 바 있다. 그리하여 忠淸南道教育委員會 文化係에서 現場調査 依頼가 있어 同月 三十日에 遺物과 遺物 出處地인



大坪里寺址略圖

- ①寺址 ②③石塔片所在處(搬出前)  
④蓮花紋石造物片 ⑤唐草瓦

寺址 殘留石造物片 二個中 四角形造出石片은 그 使用處를 모르고있고蓮花紋石片 一個는 前記石塔材의 一部分으로 推定되는 바 이들 一括石造物片이 모두 石塔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石塔은 그 樣式·構造·數值(實測值)等으로 보아 特殊型에 屬하는 吳越王錢弘俶八萬四千基塔系의 寶篋印塔이라 하겠다.

二、寺址概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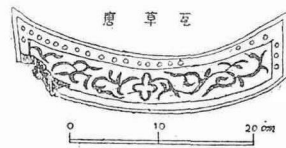
寺址는 天原郡 北面 大坪里「탑골」이라 하는 山谷인데 뒤(北)는 高峰이 솟았고 左右(東·西)로는 山줄기가 아늑하게 抱擁하였으 며 앞(南)으로는 가로호르는 시냇물을 隔하여 다시 峻峰과 相對하고 있으니 이곳에 자리잡은 若干의 傾斜를 이루고 耕作地化한 밭 一帶가 모두 寺址로 推定되었다. 父老의 말에 依하면 高麗時代의 「九龍寺」이었다 하나 未詳하고 廢寺 또한 알 수 없다. 寺址에는 自然石으로 쌓은 築臺 一部와 自然石을 그대로 使用하였던 礎石 一部가 殘存하며 그리고 瓦片이 散在하여 있다. 이곳을 仔細히 調査하였으나 搬出된 石塔의 遺址를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大坪里「가덕」洞에 居住하는 周彩文의 所有 밭가운데에 서 있는 잡나무 밑에서 蓮花紋石造物片 一個와 四角形造出石片① 一個를 發見하고 또 寺址에서 唐草瓦 一個를 發見하였다. 特히 蓮花紋石造物片 一個는 前述한 바와 같이 石塔材의 一部分으로 推定되어 後述코자

寺址를 調査한 바 있다. 天安市教育廳文化係員을 따라 于先遺物을 留置해 놓은 現物을 調査하여 石塔片 四個임을 確認할 수 있었고 다시 遺物 出土地인 寺址를 살펴 石造物片 二個와 唐草瓦 一個를 收拾할 수 있었는데

하는 바이고 또 唐草瓦는 比較的 完全한 것인데 그 紋樣은 中央에 十字花를 놓고 左右로 忍唐草紋이 優麗한 모습으로 彫刻되었으 며 周緣突帶部에는 珠紋이 施紋되어 秀麗한 所作임을 알 수 있다. 이 唐草瓦는 高麗時代의 것으로 當時에는 훌륭한 伽藍이 營設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三、石塔材(寶篋印塔)

石塔材는 지금으로부터 二十餘年前에 寺址에 있던 것을 大坪里「가덕」洞 居住 李斗世氏 家로 運搬되어 「우물」밭래돌과 河川 유두돌로 使用되어 왔다는 것이다. (寺址略圖 ②③ 參照) 그런데 一九六七年 八月末에 天安市社稷洞 三三五의 二에 居住하는 尹哲守가 六千원에 買入하여 前記 住所로 運搬되었다 한다. 이 石塔材를 吳越王 錢弘俶八萬四千基塔系의 寶篋印塔으로 보고 다음에 記述하기로 한다.



(1) 石塔片(其一) (寫眞一、復原圖 基壇部)

石塔片「其一」은 寺址에서 搬出되어 「우물」밭래돌로 使用하던 것인데 高四九cm 各一邊長六六cm의 六面體(六六×六六×四九)로 各面은 四角形 周緣郭(幅六cm)을 造出하고 그 안에 羅漢像을 二軀씩 彫刻配置하였다.

羅漢像은 各面 모두 高三四cm로 頭光과 身光이 있고 蓮花座에 結跏趺座하였는데 肉髻와 三道가 보이고 通肩衣에 衣紋이 流麗하다. 第一面과 右側으로 돌아 第二面은 앞가슴 衣紋이 卍字形으로 彫刻되었고 蓮花座의 「蓮瓣」꼴이 둥글게 表現되었으 며 그리고 第三面과 第四面은 앞가슴 衣紋이 卍字形으로 彫刻되었고 蓮花座의 「蓮瓣」도 꼴이 뾰족하게 表現되었다. 이 石塔片의 復原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壇石에 該當하는 것이다.

(2) 石塔片(其二) (復原圖 基壇部 參照)

石塔片「其二」는 寺址에서 搬出되어 亦是「우물」밭래돌로 使用하던 것이다. 高二六cm 各一邊長五九cm의 六面體(五九×五九×二六)로 各面下部와 中央部에 帶紋을 돌리고 그 사이의 下半部에는 唐草紋을 彫刻하였으며 上半部에는 仰蓮紋을 彫刻하였는데 蓮瓣이 總二十四葉에 達한다.



【寫眞 1】

이 石塔片은 그 構造上으로 復原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壇石의 上石에 該當되는 것이며 「塔身 卽印」의 구실을 하고 있다.

(3) 石塔片 (其三) (復原圖塔身部 參照)

石塔片 (其三)은 寺址에서 搬出되어 亦是 前者들과 같이 「우물」뿔래돌로 使用하던 것이다. 高 四六cm 各一邊長五〇cm의 六面體(五〇×五〇×四六)로 各面은 四角形 周緣郭(幅四·五cm)을 造出하고 그 안에 「尸毘王割肉餉鷹救鴿」、「慈力王割耳燃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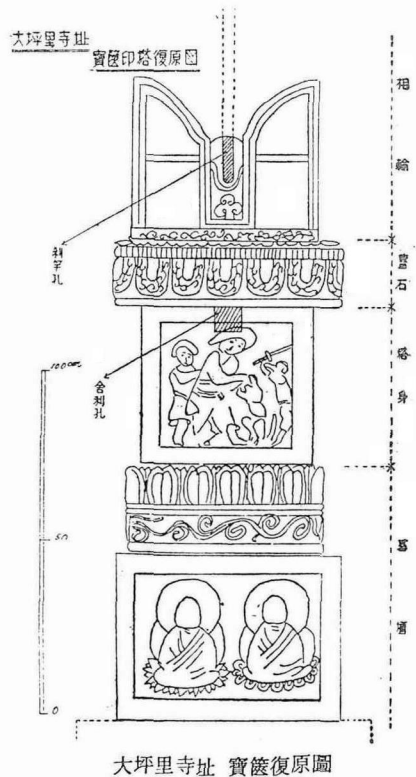
「薩埵太子投身餉虎」、「月光王捐捨寶首」의 釋迦本生을 彫刻하여 錢弘俶塔系의 典型的 樣式을 보이는 塔身이라 하겠다. 그리고 塔身上面中央에 是 舍利孔이 穿設되었으니 直徑七cm 深六cm의 圓孔으로서 既往에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을 藏納하고 또 「一切如來의 全身舍利」를 奉安하였으리라 고 推測된다. 이 石塔片은 復原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塔身部에 該當하는 것으로 곧 塔身 四面 彫像은 寶篋印塔의 모습

을 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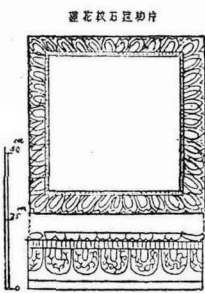
(4) 石塔片(其四) (蓮花紋石造物片實測圖 復原圖 蓋石部 參照)

石塔片 (其四)는 寺址에 殘留한 蓮花紋石片인 바 高一八cm 各一邊長六六cm의 盤石이나 上面에는 一邊長五五cm의 四角形 線郭外의 周緣으로 四十瓣의 蓮花紋이 彫刻되었었다. 그리고 四面은 上部의 短線紋帶와 下部의 單線紋帶사이로 總二十四個의 花瓣紋이 線刻되었는 바 各花瓣은 U字形으로 동글고 大小 U字形 線內에 唐草紋을 彫刻하였다. 이 石片은 彫刻手法이 前記 石塔片과 같으며 또 父老의 말에 依하면 搬出된 石塔材의 一部分의 殘留라 하니 이것이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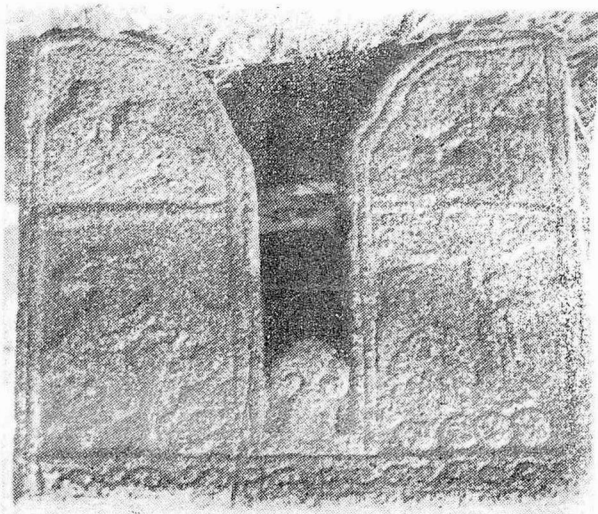
石塔片으로 推定되는 데 特히 다음 諸條件은 此石塔의 蓋石에 該當되는 바다. ①石斧片「其四」의 一邊長六六cm는 基壇石의 一邊長六六cm와 같은 數值이여서 基壇石과 相對되는 蓋石인 것 같으며 ②上面 四角形 刻出은 露盤·底部가 잘 들



大坪里寺址 寶篋復原圖



蓮花紋石造物片



〔寫眞 2〕

어맛아 露盤下의 蓋石인 것 같으며 그리고 (3) 四面의 花瓣紋은 마치 寶蓋의 透彫 모습을 한 舌狀簾飾의 느낌을 주는 것으로 感恩寺西三層石塔 舍利器 寶蓋의 舌狀의 透彫垂飾 ②과相通되는바 이는 寶蓋式 蓋石으로 推定된다.

(5) 石塔片〔其五〕  
 (寫眞二復原圖 相輪部 參照)

寺址에서 搬出되어 河川「유두들」로 利用되던 것이다. 高四八cm 下底部各邊이 五三cm로 四個의 馬耳狀을 한 蓮花瓣이 四隅立하였는데 이 隅飾은 下部로 唐草紋帶를 둘러고 四隅立한 馬耳狀의 隅飾인 花瓣部의 各面을 上下로 二分하여 總十六個區를 이루고 各區內에는 各各 浮彫像을 配置하였다. 그리고 四隅立한 馬耳狀의 各面〔사이(間)〕에는 「귀꽃」을 一個씩 彫刻하고 또 上頂部에는 四隅立한 馬耳狀의 中央에 直徑 一五cm의 花心房部를 만들고 十字形으로 蓮花瓣을 彫刻하여 곧 十字花紋을 놓고 그 花心房部 가운데에 直徑七cm 深一五cm의 利竿孔을 鑿設하였으니 既往에는 아름다운 相輪이 꽃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石塔片 其五는 錢弘倣塔系 寶篋印塔의 相輪部 露盤의 特殊樣式으로서 典型的인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手法은 靑銅 邑內里三層石塔의 露盤樣式 ③에相通되어 注目되는바다.

X X X

以上記述한 石塔片 五個는 ①露盤石(石塔片 其五)을 비롯하여 그밖에 特異한 構造를 지니고 ②數值上으로 石塔片〔其一〕과 石塔片〔其二〕과의 短縮比例에 注目되고 또는 塔身石(石塔片 其三)보다 露盤石(石塔片 其五)이 더욱 比大한 巨石을 形成하였으며 ③특히 通式 韓國石塔의 屋蓋石과 基壇石이 全無함에서 이 石塔은 特殊型에 屬하는 石塔임을 짐작하고 그 石塔片의 數值에 따라 表와 같은 復原圖를 作成하여 보았다. 復原圖에 依하면 基壇下臺石·利竿·相輪等이 缺失되었을 뿐 完全한 吳越王錢弘倣八萬四千基塔의 樣式系統을 받은 寶篋印塔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錢弘倣八萬四千基塔系 石塔이 發見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最初로 注目되는 것이며 또 貴重한 것이다. 앞서 靑陽 邑內里 三層石塔의 露盤石이 此 大坪里寺址寶篋印塔의 露盤과 같은 寶篋塔의 典型的인 露盤樣式을 하고 있어 又玄 高裕燮先生에 依하여 韓國塔에도 錢弘倣八萬四千基塔 ④의 영향을 입었으리라 고 論及된 以來 이 方面에 注目視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①感恩寺西三層石塔舍利遺物인 靑銅製四角龕의 四天王像 毘沙門天(多聞天)의 捧持塔으로서 此系原始寶篋印塔 ⑤의 先例를 볼 수 있었고 ②또 故伊東楨雄氏의 所藏品이던 「吳越王錢弘倣八萬四千塔」이 韓國出土로 밝혀 지게 되었으며 ③今般 天原 大坪里寺址에서 石造寶篋印塔이 發見되었음은 韓國塔婆研究에 새로운 示唆을 주는 것이며 또한 吳越王錢弘倣八萬四千基塔系 塔의 經營問題가 闡明되어 가는 兆朕이라 하겠다.

四、結 論

大坪里寺址가 高麗時代에 盛勢하던 大伽藍이요 寺址의 石造寶篋印塔은 高麗時代의 遺品으로 佛教美術史上의 特色의 하나라 하겠다. 더구나 今般 大坪里寺址에서 約二m에 가까운 石造寶篋印塔이 發見되었다는 것은 重大한 事實이며 이것으로 韓國에 寶篋印塔이 存在하여 있음이 確固해진 셈이다. 그리고 感恩寺西三層石塔 舍利器의 毘沙門天의 捧持塔인 原始寶篋印塔을 先例로 해서 故伊東楨雄氏의 所藏品인 吳越王錢弘倣八萬四千塔과 此 大坪里寺址의 石造寶篋印塔等으로 하여금 韓國寶篋印塔의 系譜를 따질 수 있지 않은가 하며 앞으로 此系 遺品이 添加되어 이

들塔婆研究가 밝혀지기를 바란다.

註

- ① 寺址에 蓮花紋石片과 같이 一邊長 五五cm의 四角形造出部가 있는 加工石이 있으나 그 用途는 未詳하다.
- ② 金載元·尹武炳 感恩寺址發掘調査報告「西三層石塔과 發見된 舍利關係遺物——B寶蓋——」條 參照
- ③ 拙著 青陽郡誌「名勝古蹟——邑內里三層石塔——」條 參照
- ④ 高裕燮遺著 韓國塔婆의 研究 各論草稿「青陽邑內三層石塔」條
- ⑤ 金載元·尹武炳 前揭書「青銅製四角甕」條
- ⑥ 梅原末治「吳越王錢弘倣八萬四千塔」(考古美術 第八卷 第四號)條 參照

### 密陽 茶竹里 出土遺物

李 雲 成

지난 二月一日 密陽郡山外面茶竹里에 사는 孫載憲(三七歲)氏는 그 가 耕作하는 畝밭에서 구덩이를 파다가 高麗銅鏡 및 靑銅周鉢, 高麗磁器 등 一〇點의 埋藏文化財를 發見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出土狀況과 유물에 대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密陽邑에서 山內行이나 表忠寺行 버스를 타고 山外面事務所 앞에서 下車하여 北쪽 洞路를 따라 한참 올라가면 山外面茶竹里 竹西마을에 이르는다. 이 마을은 茶院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高麗時代에는 密陽唐氏와 毛氏가 世居하였다 하며 李朝中期以來 이웃 마을인 竹東의 密城孫氏와 함께 서로 閥勢를 자랑하면서 數百年을 살아 오고 있는 安東孫氏의 마을이다. 出土地點은 마을 東邊 山기슭에 있는 대장골(大將谷)에 계단식으로 개간이 된 前記 孫氏 所有의 桑田 한복판인데 出土地點에서 四m 떨어진 밭 한구석에는 民墓의 封土가 四方으로 감아 먹힌채 마치 네모난 箱子처럼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것에 注意가 간다. 孫氏는 이 墓에 대하여 재미있는 逸話를 들려준다. 日帝 末葉에 처음 이곳을 개간한 밭입자

(現在所在不明)의

꿈에 흰머리 白髮의 將軍이 자주 나타나서 (내 집을 네가 할 터이니 새 집을 지어 달라)고 간청하므로 後患이 있을까 염려되어 개간한 밭 한구석에 假墓의 封土를 모은 것이 現在까지 遺殘하는 것이라 하며 側近에서 高麗時代의 副葬品

으로 추측되는 遺物이 새로이 出土된 사실과 함께 대장골(大將谷)이라는 地名이 매우 흥미스럽다. 그러나 將軍과 出土유물을 關聯지을만한 근거는 희박한 것 같고 出土狀況을 조사해 본바 유물이 나온 자리에는 土葬을 한듯한 長方形 玄室의 遺構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로 八〇cm 세로 一九〇cm 깊이 四〇cm 정도의 構造로서 東西로 長軸을 하였고 바닥과 壁面의 흙은 단단한 黃土였음을 짐작케 하였다. 遺物의 配置는 孫氏의 證言을 土臺로 하면 東편에 靑銅周鉢과 匙箸, 그리고 靑磁象嵌의 大接과 油壺 등이 섞여져 있었으며 가운데에 銅鏡과 靑磁接匙, 유리貫子 등이 나았고 西편에 몇 조각의 鐵片과 土器片이 發見되었다 하는데 흙속에 파묻힌 유물을 무작정 發掘하기에 바빴던 당시의 狀況으로 보아 孫氏의 證言은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出土된 유물을 간추려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1) 靑銅圓鏡

宋·金·元式 高麗銅鏡으로 주석이 많이 섞인 비교적 良質의 靑銅製品이다. 全體的으로 灰蒼色을 띄고 있으며 表面에는 아직도 反射部分이 殘存하고 있으나 균네균네 酸化의 斑點이 있어 흙이 되고 있다. 背面에

